

금융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 4월 20일부터 홈페이지에 금융 분야 국민제안창구 운영
-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 체감 과제를 발굴·개선

금융위원회는 금융 영역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국민 입장에서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금융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센터’는 국민(소비자, 업계 관계자 등)들이 금융 이용 등 실제 생활에서 직접 느끼는 문제의식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안받아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참여마당’ → ‘금융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센터’

금융 분야에서 국민이 불편하게 느끼거나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제도의 예외나 허점이 관행처럼 굳어진 경우, 금융 규제나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사문화된 경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된 금융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등이 모두 해당된다. 접수된 내용들은 내·외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정상화 과제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들이 금융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문제점이 바로 금융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제안 하나하나가 금융 분야를 개선·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원태 (02-2100-2780)
		담당자	사무관	임승수 (02-2100-2785)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권민영 (02-2100-2801)
		담당자	사무관	권오혁 (02-2100-2804)

